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3. 1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코러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5장 9~13절

다 같이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흐르는 '신적 생명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에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이나테(μείνατε)'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비적 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을 공급받듯, 우리의 사랑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안의 자원으로 사랑하려다 금방 방전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라고 절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교제(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사랑의 실천보다 시급한 것은 사랑의 근원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랑이 넘쳐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본문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테레오(τηρέω)'입니다. 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듯,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비로소 그 사랑의 실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잘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사랑은 자기 부인을 통한 희생적 내어 줌입니다.

본문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정의하신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γάπη)'입니다. 이는 계산되지 않은 사랑.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버리면'으로 번역된 '티테미(τιθημι)'는 '내려놓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즉 나의 가장 소중한 '자아'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의 옳음'이나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죽어질 때,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꽃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은 우리 삶의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이번 한 주, 내 감정의 바닥을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한한 사랑의 저수지이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 폭 잠겨,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 같이

1.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 한 주 나는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2.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각이나 권리는 무엇이며 이번 한 주 누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종보기도 베이 지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